

2021년 경기도 문학 분야 원로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심의평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원로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이번 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지원 신청서 중 시와 수필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소설과 동시, 아동청소년, 희곡 등 여러 장르가 골고루 접수되었다. 심의위원들은 이 사업이 원로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인지해 지원자들의 그동안의 창작 이력을 중시해 심의에 임했다. 그것은 원로예술인들을 향한 존경 차원이기도 했다. 또한 장르 안배에도 마음을 기울였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보다 나은 창작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오랜 기간 창작 활동을 해온 원로예술인들이었기에 지원서에 담긴 예술적 수준은 더없이 훌륭했으나 지원 예산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선별할 수밖에 없음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소외되기 쉬웠던 원로예술인들의 이번 지원이 이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풍토를 만드는 일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더 많이 알려져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문학의 맨 앞에서 후배들을 이끌어온 원로예술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021. 11. 1.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소설가 김서령

문학평론가 노지영

시인 박설희